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일본의 마음의케어센터 등 일본의 재난 피해 지원 시스템 파악 및 사례조사

☐ 과제명

-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설립방안 연구(수탁 18-140-00)

☐ 출장기간

- 2019.04.15.(월) ~ 2019.04.18.(목)

☐ 출장국가(도시)

- 일본(미야기현, 후쿠시마)

☐ 출장자

- 전진아 연구위원, 서제희 부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2019.04.15	일본 후쿠시마	후쿠시마 코코로케어센터	Dr. Masaharu Maeda 외 2인	후쿠시마 코코로케어센터 방문 및 면담
2019.04.16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	미야기현 코코로케어센터	Dr. Naru Fukichi	미야기현 코코로케어센터 방문 및 면담
2019.04.16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	미야기현 센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Dr.Mizuho Hayashi 외 4인	센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및 면담
2019.04.17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	미야기현청 정신건강 담당부서	정신건강사업담 당(실장) 오오바 유카리 외 2인	미야기현청 정신건강 담당부서 방문 및 면담

2 출장 주요내용

①	일본 후쿠시마 코코로케어센터 방문 및 면담
일 시	2019.04.15. 오후 3시~5시
장 소	후쿠시마 코코로케어센터
참석자	후쿠시마 의과대학 Masaharu Maeda 교수, 후쿠시마 코코로케어센터 와타나베 이쿠코 소장, 타이라 신지 부소장, 오유희 일본 츠쿠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본 과제 외부 연구진), 전진아 연구위원, 서제희 부연구위원
○ 후쿠시마 코코로케어센터는 후쿠시마현에서 일반사단법인 후쿠시마현 정신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100%가 정부로부터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임. ○ 센터 체제는 지원대상자 밀집 지역을 고려하여, 광역센터와 4방부 2출장소 체제를 갖추고 있음. ○ 간호사, 보건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복지사, 사회복지사, 작업요법사 등의 전문직원이 전문성을 살려, 피난처의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면서 개인 상황에 맞추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인력은 광역센터 22명, 방부센터 및 출장소 36명으로 구성되어있음(출장당시 기준). ○ 센터의 주요역할 - ① 인재의 육성 및 파견 : 지원자를 위한 교육연수 · 기술연수 · 행정 · 관계기관에 강사파견 등 - ② 코코로케어에 관한 계몽활동 : 재해관련, 스트레스 관련 팸플렛 작성 및 배부 - ③ 피해자 상담 및 지원 : 강연회, 상담회 및 순회방문 등을 실시하며, 관련기관과의 연계로 멘탈헬스사업을 실시 - ④ 코코로케어에 관한 정보수집과 분석 : 피해자의 실태파악, 코코로케어에 관한 정보 수집 - ⑤ 기타 코코로케어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실시 ○ 센터의 향후 과제 - ①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주민 대상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 지원해야하는 정신증상을 가진 사람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음 - ② 지원인력 대상 정신건강 지원: 지원 인력은 피해자임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임. 지원인력의 소진이 많으며 인력 이탈도 상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③ 통상의 정신보건복지로의 이행: 주민의 생활 파악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역건강을 예측할 수 없는 지자체 지원을 누가 어떻게 협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음.	

②	미야기현 코코로케어센터 방문 및 면담
일 시	2019.04.16. 오전 10시 ~12시
장 소	미야기현 코코로케어센터
참석자	Dr. Naru Fukichi 부센터장, 오윤희 일본 츠쿠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본 과제 외부 연구진), 전진아 연구위원, 서제희 부연구위원
○ 미야기코코로케어센터는, 2011년 12월에 개설하여 2017년까지 약7년간 피해자의 정신보건분야의 지원활동을 진행해왔음 - 직원구성은 의사 및 정신보건복지사, 보건사, 심리사, 간호사, 작업요법사 등 다직종으로 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multidisciplinary team이 아닌 transdisciplinary team으로 운영되는데 특색이 있음. 이는 다직종의 종사자가 팀으로 구성됨과 동시에, 팀전원이 어느정도 기본지식을 갖추고 누구나가 일정수준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도록 하는 팀을 의미함. - 지자체의 정신보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상담 및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침에 따라 전개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코코로케어센터가 하고 있다고 언급함. ○ 미야기코코로케어센터의 사업 내용 및 실적 - 미야기코코로케어센터는 6개의 주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해시 정신보건 의료정보지원시스템(Disaster Mental Health Information Support System, DMHISS)를 기초로 한 독자의 업무통계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활동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 2012년 개설 당초의 운영체계 미비로 인해, 데이터는 2013년도 부터 수치화하고 있음. - 지역주민지원 : 피해자에대한 정신질환의 예방 및 멘탈헬스의 개선을 목적으로한 상담·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로 가정방문 상담임. · 상담 원인을 보면, 205년, 2016년, 2017년의 상담원인으로 「정신이상」 「건강상의 문제」 「가족·가정문제」 「중독」 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정신질환 유형을 보면 우울장애를 포함한 기분정동장애, 불안장애가 많으며, 재해 이후 발생하는 정신질환들이 많음. · 기존 정신질환자(조현병 등)에 대한 재난 직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함. 약물복용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집단이나 참사 초기 이들에 대한 관리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경험이 있었다고 공유함. - 보급계몽활동, 인력 양성, 조사 연구, 아동 코코로케어센터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운영 중임 ○ 미야기센터의 부센터장은 트라우마 지원 대상자의 유형과 센터의 기능을 전환시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효고현의 모형과, 10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운영하고 지역의 기능으로 흡수된 니가타 현의 모형 등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트라우마 지원 모형들이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③	센다이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하트포트센다이) 방문 및 면담
일 시	2019.04.16. 오후 2시~오후 4시
장 소	센다이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참석자	센다이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하야시 미즈호 소장, 하라다 슈이치로 정신보건의, 코자카이 유키 상담계장, 사에키 스즈카 상담자, 오유히 일본 츠쿠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본 과제 외부 연구진), 전진아 연구위원, 서제희 부연구위원
○ 1997년 4월에 설립된 센다이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미야기현코코로케어센터와는 달리 센다이시의 지역주민에 한정하여 트라우마 지원을 하고 있음. - 센다이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재해 심리지원사업도 하지만 한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동일하게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고위험군 대상 사례관리사업도 진행하는 센터임.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대상자는 주로 기분장애를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수면문제가 초기에 부각되었으나 지금은 감소하였음. 사회생활/일상생활 복귀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대상자도 많음.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기능 - 보급·계몽활동 : 홈페이지 및 기관지를 통해 코코로 케어에 관한 정보 발신, 2014년 「재해시 지역 정신보건복지 가이드라인」 개정하였으며, 일반시민용/내부직원용/외부직원용 가이드라인을 각각 작성하였음. - 상담 및 기술원조 : 각 구 보건복지센터 지소에 직원을 파견하고, 직원과 협동하여 피해자 방문, 사례검토회 참가 등 기술을 지원함. 코코로케어센터와 동일하게 보건소의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상담은 내소상담과 가정방문상담으로 이루어지며, 긴급 hotline 체계가 구축되어있으며, 센다이시 자체적으로 구성되어있는 야간 위기/응급 대응 체계를 활용하기도 한다고 언급함. - 인력 양성: 내부직원 및 시내 피해자 지원에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멘탈헬스에 대한 교육 연수 사업을 진행함. - 매니지먼트·연락조정 : 미야기코코로케어센터 운영회의에 출석 및 담당레벨의 협의 등을 통해 상호 지원활동 및 현내의 부흥상황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음. 또한 시외 전출사례의 지속지원을 위한 연계도 하고 있음. 2016년 4월에 발생한 쿠마모토지진에 대해 미야기현 재해과건정신의료팀(DPAT)에 참가하여, 코코로케어관련 자료 제공 및 강사 파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센다이시는 재해후 초기부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위해, 코코로케어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센터에 맨파워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했음. - 국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재해 후 코코로케어 지원체제는 예산축소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인력들은 언급하며, 각 지역은 자신의 지역에 대한 현상파악 및 적절한 지원체제 정비, 기존의 사업(자살대책 및 알코올 관련문제대책 등)과의 연동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④	미야기현청 정신건강 담당부서 방문 및 면담
일 시	2019.04.17. 오전 10시~12시
장 소	미야기현청
참석자	미야기현 보건복지부처 정신보건추진실 오오바 유카리 실장, 타카하시 미네 기술반장, 하타자와 쇼우 주사, 오유히 일본 츠쿠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본 과제 외부 연구진), 전진아 연구위원, 서제희 부연구위원
○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현청에서 중앙정부에 트라우마 지원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였으며, 현재의 미야기현 코코로케어센터를 운영하는 공익사단법인이 기존 미야기현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코코로케어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초반에는 코코로케어 팀으로 시작하여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트라우마 케어가 필요하다는 지역의 합의에 따라 센터가 설립되었음. - 초기에는 코코로케어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음. ○ 미야기현의 복구 계획에는 초기부터 트라우마 센터 설치가 포함되어있었으며, 10년의 한정된 기간을 예상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알코올 중독문제, 자살위험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 10년을 넘어선 기간 동안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합의가 다시금 이루어져 5년을 추가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현재 중앙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황임. - 10년은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10년 이후부터는 현에서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것 같음. - 코코로케어센터의 예산은 현재 32억 정도 수준이며, 대부분이 인건비(센터에 약 35명 정도의 인력 배치)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 현청에서는 코코로케어센터의 운영이 한정적인 기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기존 정신건강 지원 체계와 어떻게 잘 연동되고 흡수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음. - 지자체에 기존에 있는 체계들을 활용하여 재난심리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코코로케어 센터를 재난이 생길 때마다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정부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음. - 기존 지자체에서는 복지사무소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수요를 파악해주고, 보건소의 정신보건반(2-3명의 보건사로 구성)에서 건강실태조사, 상담, 방문지도, 위기개입을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구조임. 현재 미야기현의 코코로케어센터는 이들 모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함. ○ 현청에서는 가설주택 거주자 대상, 재해공영주택 거주자 즉 소득 취약계층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 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어, 이 조사를 통해 신체 및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은 코코로케어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인지를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보건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연계받고 있는 상황이며, 보건소의 보건사가 의료기관에 연계해주는 구조임	